2025년 10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한국 증권고배당 TOP3+, KOSPI200 TR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신규 상장 ETF(10/28)
- HANARO 증권고배당 TOP3 플러스, 마이티 200TR

HANARO 증권고배당 TOP3 플러스: 국내 주요 증권주로 구성하는 고배당 패시브 ETF이다. 정부 정책 모멘텀과 증시 상승의 수혜 기대 가운데, 배당수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은 증권업종에서 주요 3개 종목의 비중을 높게 구성하는 집중형 포트폴리오의 종목이 되겠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 유동성 기준(유동 주식 비율 10%↑, 시총 2천억원↑, 거래대금 10억원↑)에 맞는 증권업 분류 기업들을 편입 대상 유니버스로 한다.

이어 섹터 조건(증권 부문의 영업이익 비중 30%↑, 매출 비중 70%↑)을 충족시키는 종목의 예상 배당수익률과 직전 1년 배당 수익률의 평균치를 산출한 후 상위 15개 기업들을 추려낸다. 최종 포트폴리오의 경우, 상기 조건을 만족시킨 15개 기업들의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비교하여 높은 순서의 10개 종목을 편입하여 구성한다.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10개 종목의 편입 비중을 배분하는 가운데 6개월 평균 시가총액 기준 상위 3개 종목들은 'TOP3'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며, 각각 20%의 비중을 할당한다. 나머지 7개 종목에 대해서는 시총 기준의 비중 배분과 동시에 15%의 Cap Rate이 적용된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5월과 11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걸쳐 진행한다. 총 보수는 0.07%이다.

마이티 200TR: 국내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KOSPI200을 TR 방식으로 투자하는 패시브 ETF이다. 배당금을 ETF 분배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과세 이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KOSPI200 TR(총수익) 지수 추종 종목이 되겠다.

포트폴리오의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2회(6월과 12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에 걸쳐 진행한다. 총 보수는 0.05%가 적용된다.

도표 1. HANARO 증권고배당 TOP3 플러스, 마이티 200TR ETF의 종목 개요

ETF명	HANARO 증권고배당 TOP3 플러스	마이티 200TR
상장일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기초지수	FnGuide 증권 고배당 TOP3 플러스 지수	코스피 200 TR
복제방법	실물(패시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07%	0.05%
구성종목 수	10종목	200종목
비중결정방식	▣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비중을 결정하되, 6개월 평균 시가총액 상위 3종목에는 각 20%의 비중 부여 ▣ 나머지 7개 종목의 경우, 정기 변경 시 특정 종목의 지수내 비중이 15%를넘을 경우 최대 15%로 비중을 제한하고 해당 종목의 초과 분을 차순위 종목들에 배분하여 종목별 비중이 모두 15% 이하가 되도록 한도 적용	유동시가총액가중 방식
정기변경	매년 5, 11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목 선정	KOSPI 200 선물시장 6월, 12월 결제월 최종거래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자료: KRX, 하나증권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전중훈 jonghunjeon@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